

朝鮮 前 · 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

- 「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

趙善榮, 車雄碩, 金南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bstract

A Study of the Perception of SoGal in the early through mid Chosun Dynasty

- centering on UiBangYuChi and DongUiBoGam -

Cho Sun Young, Kim Nam Il, Cha Wung Seok

*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In order to find out how SoGal was perceived in the Korean medical history and under what logic it was treated, the SoGal section of UiBangYuChi and DongUiBoGam were compared and examined. Through this process, the following could be concluded. First of all, in UiBangYuChi's SoGal Section, mainly the fire/heat theory was adopted. In DongUiBoGam's SoGal Section, the lack of Bodily Liquids and Blood theory was selected. Secondly, in DongUiBoGam's SoGal Section, it went beyond UiBangYuChi's perspective of viewing all thirst caused by fire/heat as SoGal, and perceived SoGal as a state of thirst reached for the lack of Bodily Liquids and Blood. Lastly, UiBangYuChi's SoGal Section accepts the fire/heat theory, and heavily restricts the use of BuJa in PalMi, while DongUiBoGam's SoGal Section elucidates the use of BuJa when needed.

I. 序 論

‘消渴’은 『素問陰陽別論』에 “二陽結謂之消”라고 처음 언급된 이후 대부분의 綜合醫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질환이다. ‘消’는 消穀, 消燦, 消耗, 消瘦의 뜻이고, ‘渴’은 口渴引飲의 뜻으로서 多飲, 多食而消瘦, 多尿而頻數, 或混濁, 或尿恬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¹⁾ 현대에 와서도 ‘消渴’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많다. 특히 서양의학의 당뇨병의 증상과 消渴의 증상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다가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소갈의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인 고찰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 간 소갈에 대한 문헌연구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갈과 관련된 문헌을 요약정리하는 것²⁾과 당뇨병과 소갈의 공통점을 부각³⁾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비해 당뇨에 대한 인식이 앞섰다는 주장이나 소갈과 당뇨가 같다는 전제 아래 소갈 처방으로 당뇨 치료약을 찾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 외에도 中醫辨證施治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⁴⁾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들은 ‘消渴’이라는 文字的 공통점에 얽매어 같은 病名이라 하더라도 각 의가와 의학조류에 따라 조금씩 변화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당뇨병은 곧 소갈’이라는 등식을 무리하게 성립시키려다 보면 한의학의 교육과 치료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갈의 의론과 치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현재 시점에서 소갈의 한의학적 접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논자는 한국의학사에서 消渴病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진행하여 소갈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를 높여보려고 하였다. 그 첫 단계로 『의방유취』와 『동의보감』의 消渴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안상우는 『동의보감』 본문에만 『의방유취』를 직접 인용한 내용들이 보이고, 편제 상 『의방유취』의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의방유취』가 후대에 끼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동의보감』이라고 하였다.⁵⁾ 특히 『東醫寶鑑·消渴』에서는 『類聚』라고 인용한 문장이 세 번 보이고, ‘消渴形證’이란 편제까지 있어서 소갈병의 치료에 『의방유취』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⁶⁾

본 논문에서는 조선전기까지의 소갈에 대한 의론과 치료 논쟁들에 대한 1차적인 정리를 한 『의방유취·소갈문』을 통해 『동의보감·소갈』에서는 소갈병의 범주와 의론 및 치료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화되고 심화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 楊思樹 외, 中醫醫臨床大全

2) 張仁圭, 消渴에 對한 文獻的 研究, 東西醫學會誌 第10卷 第1號, 1985.

3) 張泰洙 외 2인, 症狀를 中心으로 본 消渴과 糖尿病의 關係, 韓方內科學會誌 3월호 2권 1호, 1985.

4) 楊思樹 외, 中醫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5) 안상우, 『醫方類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영향, 전국한의학학술대회자료집, 2000.

6) 안상우, 『醫方類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영향, 전국한의학학술대회자료집, 2000.

II. 本 論

1. 연구방법

그 동안의 한국역사학의 연구는 각 시대별 의가 및 의서에 대한 연구 또는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한국역사학의 3대의서인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東醫寶鑑』과 같은 거대한 분량의 종합의서일 경우 총론적인 연구가 선행되면 이후 본초, 침구, 방제, 진단 및 각종 잡병 등 다양한 주제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⁷⁾ 그간 김⁸⁾은 『의방유취』의 「오장육부도」에 대해, 강⁹⁾은 『향약집성방』의 「향약본초」, 「상한문」, 「해수문」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¹⁰⁾는 『동의보감』의 「상한」에 대해, 정¹¹⁾은 「부인문」에 대해, 류¹²⁾는 「소아문」에 대해, 오¹³⁾는 「침구편」에 대한 주제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면 각 종합의서의 성격을 다각도로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 개별주제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개별주제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한분야로서 주요 질병 중 하나인 '소갈'을 택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의방유취』와 『동의보감』의 消渴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두 책은 저술시기나 편집방식이 매우 상이한 책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여서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의방유취』는 15세기 초까지의 동아시아 의학을 총정리한 문헌으로, 원 인용문헌의 의도와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엄격히 구성되어 조선전기 의학의 특색을 유추해볼 수 있다¹⁴⁾.

둘째 『동의보감』은 독특한 편재를 통해 허준의 의학사상에 따라 편집된 의서로서, 인용된 문헌은 원 인용문헌의 의도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기보다 허준의 의학사상에 대한 논거로 활용된 측면이 크다.¹⁵⁾

7) 안상우, 『醫方類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영향, 전국한의학학술대회자료집, 2000.

8) 김대형, 『의방유취』에 인용된 {오장육부도}의 저자와 편제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9/2(통권11호), 2003

9) 강연석·안상우,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통권8호), 2002 / 『鄉藥集成方』 중 「傷寒門」의 본초분석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8/2(통권9호), 2002 / 『鄉藥集成方』 「咳嗽門」에 나타난 朝鮮前期 鄉藥醫學의 특징, 韓國醫史學會誌 16/1, 2003

10) 이상원·김남일, 『東醫寶鑑』의 傷寒에 대한 認識 - 六經形證用藥을 中心으로 -, 국제동아시아전통의학사학술대회자료집, 2003

11) 鄭珉雅, 許浚의 『診解胎產集要』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 2003.

12) 柳明淑, 『東醫寶鑑』에 나타난 錢乙의 五臟辨證 研究, 경희대학교, 2005.

13) 오준호, 동의보감 침구편의 의사학적 고찰, 한국역사학회지 17권 1호 2호, 2004.

14)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때문에 『동의보감』의 경우 ‘소갈’이란 단어가 서로 다른 인용문헌에서 인용된 여러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허준의 의학사상, 또는 조선중기 한국한의학의 실정에 따라 같은 의미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방유취』의 경우 편찬진들의 의학사상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의과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면 원문대로 실려 있으므로 똑같은 ‘소갈’이란 단어가 각각의 인용문헌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나 범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동의보감』에 인용된 용어들은 17세기 초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의방유취』에 인용된 용어들은 편찬된 15세기 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까지의 모든 의미를 보다 폭넓게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의방유취』의 ‘消渴病’

『의방유취·消渴門』은 제124권부터 제126권에 걸쳐 의론, 처방, 식치, 금기, 침구, 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의방유취·소갈문』의 편제와 인용제서

구성	인용제서 목록
(의론)	巢氏病源, 聖惠方, 三因方, 神巧萬全方, 簡易方, 直指方, 嚴氏濟生方, 管見大全良方, 儒門事親, 治病百法, 雜記九門, 宣明論, 東垣試效方, 澹寮方, 衛生寶鑑, 聖濟總錄, 拔粹方, 醫方集成, 永類鈴方, 玉機微義, 金匱方
(처방)	千金方, 千金月令, 海上仙方, 聖惠方, 大成本草, 三因方, 神巧萬全方, 助道方, 是齋醫方, 경쇄록, 간지방, 직지방, 주씨집험방, 엄씨제생방, 심형삼료, 선명론, 동원시효방, 난실비장, 득효방, 담헌방, 주후방, 담료방, 위생보감, 성제총록, 발수방, 의방대성, 수진방, 영류검방, 경험비방, 경험양방, 의림방, 신효명방, 옥기미의, 단계방, 구급선방, 위생간지방, 금계구현
소갈식치	천금방, 식의심감, 성혜방, 주후방, 필용전서, 수친양노서
소갈금기	소씨병원, 대전본초, 득효방, 비예백요방
소갈침구	천금방, 수진방
소갈도인	소씨병원

※ 소갈식치, 소갈금기, 소갈침구, 소갈도인은 『의방유취』에 실제 거론된 편명이지만 (의론)과 (처방)은 논자가 설명을 위해 붙여 놓은 편명임.

1) 火熱論

『의방유취』의 의론 부분은 처방이나 식치 부분과 달리 『千金方』을 인용하지 않고 곧바로 『소씨병원』의 「消渴病諸候」의 渴利損後候, 內消候, 強中候를 부분인용하여 시작하고

15) 김남일·신동원·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도서출판 들녘, 서울, 1999.

있다. 이는 『의방류취』 편집인들이 소갈에 대한 의학적 인식을 통해 『소씨병원』을 소갈병에 대한 의론의 시작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뒤이어서 여러 의서들에서 여러 종류의 소갈에 대한 의론이 뒤따르는데 그 가운데 『유문사친』, 『치병백법』, 『잡기구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같은 내용이 겹칠 경우 다른 서적의 내용을 생략하는 방법을 통해 유하간의 화열론¹⁷⁾을 중심 의론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치병백법』과 『잡기구문』은 당대에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서적이지만¹⁸⁾ 명나라 때에 모두 『유문사친』에 함께 합편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¹⁹⁾.

유하간은 전대에 유행하던 더운 약을 쓰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消渴의 치료에서도 같은 이론을 폈고, 『의방유취』는 『유문사친·三消之說當從火斷』조를 통해 “최근 의사들이 소갈을 신허로 단정짓고 신수가 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옳은 것이나 그 처방은 그릇되게 하고 있으니 어찌하리오! 팔미로 소갈을 치료하는 것은 신수를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돕는 것이다.”²⁰⁾라고 하면서 신궁환²¹⁾이나 人參白朮湯, 消痞丸, 大人參散, 碧玉鷄蘇散, 桂苓甘露散, 白虎湯, 生藕節汁, 淡竹瀝, 生地黄汁 등을 쓰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론은 뒤이어 나오는 처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많은 처방이 화열을 제거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2) 八味圓의 처방²²⁾과 응용

『의방류취·소갈문』은 부자가 포함된 팔미를 쓰는 것을 비판하면서 화열을 끄는 처방을 중심으로 소갈을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론 부분에서 『간이방』과 『관견대전양방』의 팔미를 써야 한다는 주장과 처방 부분에서는 『삼인방』의 附子를 쓰는 八味圓²³⁾도 소개하고 있다. 다만 팔미원에 대한 설명 이후 『직지방』, 『주씨집험방』, 『성제총록』의 부자를 제거한 가감법을 주석으로 덧붙여 놓아서 『의방유취』 편집자들이 소갈의 치료에 부자를 사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16)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7) 三消之說, 當從火斷.

18) 최환수 외1인, 『의방류취』의 인용書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3권 제1호, 1997. p.19

19)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2000, pp.44-45

20) 後人斷消渴爲腎虛, 水不勝火則是也, 其藥則非也, 何哉, 以八味丸治渴, 水未能生而火反助也

21) 今代劉河間自制神芎丸, 以黃芩味苦入心, 牽牛大黃驅火氣而下, 以滑石引入腎經. 此方以牽牛滑石爲君, 以大黃 黃芩爲臣, 以芎藭薄荷爲使, 將離入坎, 真得黃庭之祕者也.

22) 이에 대한 기존 연구로 張仁圭(消渴에 應用되는 腎氣丸에 關한 文獻的 研究, 東西醫學 제10권제4호, 1985)의 논문이 있으나 신기환으로 대표되는 육미, 팔미 등의 각종 가감된 처방을 醫家와 시대에 따른 의사학적 분석없이 나열하여 ‘육미 가 육계, 부자’를 소갈 치료의 기본방으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3) 治消渴小便多, 以飲水一斗, 利小便反倍. 澤瀉, 茯苓, 牡丹皮 各三兩, 桂心, 附子炮去皮臍 各二兩, 山茱萸, 山藥 各四兩, 熟地黄 八兩, 右爲末, 蜜丸, 梧子大, 每服五十丸, 米湯下, 食前服也.

24) 실제 부자를 사용하는 처방은 단지 4개만 소개하고 있다.

* 八味圓

『直指方』 소갈을 치료하고, 허한 것을 보해주며 갈증을 멎게 한다. 본방에서 부자를 거하고 복오미자로 대신한다. 처방 안의 택사는 썰어서 다시 찌서 쓴다. 숙지황 역시 다시 한번 찌서 쓴다.²⁵⁾

『朱氏集驗方』 소갈을 치료한다. 팔미원에서 부자를 제거하고 오미자를 가한다. 속이 빈 누에고치와 씨를 뺀 가지를 끓인 물에 복용한다.²⁶⁾

『聖濟總錄』 소갈을 치료한 후 오른쪽의 팔미를 쓴다. 약한 불에 말린 숙견지황 네냥, 길 껌질을 제거한 육계, 목단피, 산약, 검은 껌질을 제거한 백복령, 산수유, 택사, 오미자 각 한 냥.²⁷⁾

이를 통해 의학사적으로 송·금원 대에는 팔미의 응용, 특히 부자의 가감이 소갈의 치료에 중요한 논쟁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 전기의 소갈 치료에는 화열론을 중요한 이론으로 채택하면서 부자를 쓰는 쪽보다는 부자를 사용하지 않는 치료법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3) 瘡渴·消中·瘡腎(腎消)의 三消論과 轉變證

『의방류취』는 瘡渴·消中·瘡腎의 삼소론으로 소갈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후 설명할 『동의보감』의 上·中·下의 구분에 따른 삼소론과는 다른 구분법이며, 일관된 정리없이 인용 제서마다 다소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瘡渴은 渴症이 나고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을, 消中은 밥을 많이 먹으면서 물은 적게 마시고 소변양도 적지만 소변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것을, 그리고 瘡腎은 소변이 달고 냄새가 나며 허리가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아래 표2 참조)

南宋의 黎民壽(1260-1264년에 불교를 믿음)은 『玉函經』을注한 이후 『斷病堤綱』, 『結脈精要』 및 『간이방』을 지어 합하여 『醫家四書』를 지었다고 한다. 이 중 『의방류취·소갈문』에 인용된 『간이방』에서는 삼소론을 상중하 삼초로 나누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²⁸⁾ 그래서 소갈의 원인을 “삼초는 형체가 없는 화이므로 열이 안에서 타오르면 정액이 마르고 장부가 타게 되니, 형체가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은 불을 꺼서 윤택하고 싶어하는 것이다.”²⁹⁾

25) 治消腎, 補虛止渴, 方見痲冷門. 本方去附子, 以北五味子代之, 內澤瀉, 截塊再蒸, 熟地黃再蒸.

26) 治消渴, 八味圓去附子, 加五味子, 用藟空及茄空煎湯下.

27) 治消渴後, 熟乾地黃焙 四兩, 桂去麤皮, 牡丹皮, 山芋, 白茯苓去黑皮, 山茱萸 各一兩, 澤瀉, 五味子 各一兩. 右八味.

28) 渴疾有三, 曰瘡渴, 曰消中, 曰消腎, 分上中下焦而言之.

29) 夫三焦爲無形之火, 熱內燻致精液枯乏, 臟腑焦腐, 飲有形之水, 以澆沃欲其潤澤也

라고 하였다.

또 『간이방』에는 “무형의 화열이 날마다 치성하여 유형의 물을 날마다 마시게 되면, 오장의 기혈이 상하여 못쓰게 되니, 수기가 안으로 피부에서 일어나면 전하여 발등이 붓게 된다. 화열이 안으로 피부와 근육 사이에 머무르게 되면 癰腫, 瘡瘍이 생긴다. 이것은 모두 병이 심해져서 대부분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것이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³⁰⁾라고 하여 전변증을 명확히 기술하였다.

『간이방』에 소개된 상중하의 삼소론과 소갈전변증은 모두 『의방유취』에서는 다른 의문들과 뒤섞여 간략히 나오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³¹⁾

표2. 『의방유취』의 삼소론

분류	내용	인용제서
消渴	飲水多而小便少	聖惠方
	屬心, 故煩心, 致心火散蔓, 渴而引飲. 經云: 脈軟散者, 當病消渴. 諸脈軟散, 皆氣實血虛也	三因方
	若飲水多者, 小便又少	神巧萬全方
	若熱氣上騰, 心虛受之, 火氣散漫而不收斂, 胸中煩燥, 舌赤如血, 唇紅如坏, 渴飲水漿, 小便頻數...屬於上焦, 病在標也	簡易方
	上同	直指方
	多渴而利	嚴氏濟生方
	故渴而引飲. 若飲水多而小便多	雜記九門
	渴而飲水多, 小便數, 脂似麩片括者,	澹寮方
	熱在上焦, 病在標也. 心虛煩燥, 舌赤脣紅, 引飲, 小便數, 心火內勝, 留於分肉爲癰腫,	永類鈴方
	消中	喫食多而飲水少, 小便少而赤黃
屬脾, 癰熱成, 則爲消中. 消中復有三, 有寒中熱中強中. 寒中陰勝陽鬱, 久必爲熱中. 經云: 脈洪大, 陰不足, 陽有餘, 則爲熱中; 多食數溲, 爲消中; 陰狂 澹寮方作強. 興盛, 不交精泄, 則爲強中. 三消病至強中, 不亦危矣.		三因方
不甚渴, 小便數, 消瘦,		神巧萬全方
若熱蓄於中, 脾虛受之, 伏陽蒸內, 消穀喜飢, 食飲倍常, 不生肌肉, 好飲冷水, 小便頻數, 色白如泔, 味甜如蜜, 名曰消中, 又曰脾消, 屬於中焦, 病在水穀之海也.		簡易方
簡易方과 上同		直指方
若飲食多而不甚渴, 小便數而漸瘦	雜記九門	

30) 無形之火熱日熾, 有形之水飲日加, 五臟乃傷氣血俱敗, 水氣內勝溢於皮膚則傳爲跗腫, 火熱內勝留於分肉之間, 必爲癰腫瘡瘍, 此皆病之深而多致不療, 良可憫哉.

31) p. 참조

	二者喫食多, 不甚渴, 小便少, 似有油而數	澹寮方
	熱畜中焦, 病在水谷之海. 脾虛陽伏, 消谷善飢, 食飲倍常, 飲冷小便數, 色白味恬, 脾土虛, 腎水溢爲臍腫.	永類鈴方
消腎	飲水隨飲便下, 小便味甘而白濁, 腰腿消瘦	聖惠方
	消腎屬腎, 盛壯之時, 不自謹惜, 快情縱慾, 極意房中, 年長腎衰, 多服丹石, 眞氣既喪, 石氣孤立, 唇口乾焦, 精溢自泄, 不飲而利. 經云: 腎實則消不渴, 而小便自利, 名曰消腎, 亦曰內消.	三因方
	渴飲水不絕, 甚者腿膝瘦弱, 小便濁, 有脂液	神巧萬全方
	若熱伏於下焦, 腎虛受之, 致精髓枯竭, 引水自救而不能消, 飲水壹斗, 小便反倍, 味甘而氣不躁, 陰強而精自走, 腿膝枯細, 漸漸無力, 名曰消腎	簡易方
	簡易方과 상등	直指方
(腎消)	若渴而飲水不絕, 腿消瘦而小便有脂液	雜記九門
	三者渴飲水不能多, 腿腫, 腳先瘦小, 陰痿莖弱, 小便數	澹寮方
	熱伏下焦, 病在本也, 腎虛精渴, 引水一斗, 小便反倍, 味甘而不躁, 腎水不升, 陰強失精.	永類鈴方

4) 消渴病的 범주

『의방유취·소갈문』에는 앞서 기록한 삼소론 외에 內消³²⁾, 強中³³⁾, 膈疝³⁴⁾, 風消³⁵⁾, 肺消³⁶⁾, 膈腎³⁷⁾, 寒暑之交³⁸⁾, 飲食無度³⁹⁾, 服石丹毒, 產蓐⁴⁰⁾, 六經渴⁴¹⁾으로 분류한 소갈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永類鈴方·雜病消渴』 조문에서 추위와 더위가 교차(寒暑之交)하면 기가 응체되어 고르지 못하고 코가 막히며 목소리가 울리고 목구멍이 건조해지면서 번갈아 생기고 이부가 막히게 된다는 것⁴²⁾, 음식에 절도가 없어서(飲食無度) 뜨거운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면 열이 위에 쌓여서 번갈하게 된다는 것, 산후(產蓐)에는 혈허로 인한다는 것, 상한으로 인한 六經渴⁴³⁾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갈병의 범주보다 다소간 폭넓은 의미를

32) 不渴而小便多

33) 莖長興盛不痿, 精液自出

34) 夏月暑每入心

35) 二陽之病, 二陽者, 陽明也: 陽明者, 胃與大腸也

36) 肺消者, 心移寒于肺

37) 暑入心, 心旺不受邪, 移於肺, 肺葉焦, 眞液枯而飲水

38) 氣壅不調, 鼻塞聲重, 咽乾煩渴, 二腑癰閉

39) 啖熱物多, 熱畜胃, 煩渴

40) 血虛所致

41) 『衛生寶鑑·辨六經渴竝治法』

42) 『簡易方·消渴』

43) 太陽渴, 脈浮無汗者, 五苓·滑石之類. 陽明渴, 脈長有汗者, 白虎·涼膈之類. 少陽渴, 脈弦而嘔者, 小柴胡加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寒暑之交에 대한 조문의 의미는 『簡易方·痢渴』 조문에 좀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분명해진다.

추위와 더위가 교차(寒暑之交)하면 기가 응체되어 고르지 못하고 ... 마땅히 心을 씻어서 그 열을 씻어내는 것이니 열이 제거되면 폐경이 맑고 윤기 있게 되며 갈증이 저절로 멎게 된다. 마땅히 세심산의 종류를 쓴다.⁴⁴⁾

이것은 위에서 기술한 소갈병으로 인한 갈증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상한으로 인한 갈증에 가까운 증상으로 보이며, 飮食, 產褥, 육경갈 등으로 인한 소갈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이것은 소갈병에 대한 개념이 덜 분명했던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화열론만으로 소갈병을 설명하는 것이 한계를 갖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화열론을 강조하면 진액이 부족해지고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설명은 자연스럽지만, 화열로 인한 각종 갈증을 소갈병과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동의보감』의 소갈병의 범주를 고찰하면서 좀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3. 『東醫寶鑑·消渴』의 성과

『東醫寶鑑·消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消渴之源, 消渴形證, 脉法, 消渴有三에서는 소갈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상중하의 분류와 치료법 및 처방을 제시하여 소갈에 관한 전반적인 논을 모두 이끌고 있다.

食休證, 消渴小便晁, 消渴由坎火衰少, 消渴與脚氣相反, 消渴通治藥은 앞에서 다 하지 못한 소갈과 관련된 증상과 원인 및 처방을 보충하였다. 酒渴, 蟲渴, 強中證에서는 독특한 원인에 의한 소갈을 기술하고 있다.

消渴傳變證, 消渴須預防癰疽, 不治證은 시간에 따라 소갈의 병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禁忌法과 單方을 덧붙였다.

표3. 『동의보감·소갈』의 편제

消渴之源, 消渴形證, 脉法, 消渴有三
食休證, 消渴小便晁, 消渴由坎火衰少, 消渴與脚氣相反
消渴通治藥
酒渴, 蟲渴, 強中證
消渴傳變證, 消渴須預防癰疽, 不治證

瓜樓根也. 太陰渴, 脈細不欲飲水, 縱飲唯思湯不思水, 四君子·理中湯之類. 少陰渴, 脈沈自利者, 豬苓湯·三黃湯之類. 厥陰渴, 脈微引飲者, 當少少與之.

44) 寒暑之交, 氣壅不調, 鼻塞聲重, 咽乾煩渴, 二腑癰閉, 法當洗其心, 滌其熱, 熱去而肺經清潤, 渴自止矣, 宜用洗心散之類.

 禁忌法
 單方

1) 津液 및 血不足論

『동의보감』은 『내경』의 “두 가지 陽이 맺힌 것을 消라 한다.”⁴⁵⁾라는 문장에 대한 이동원의 설명으로 「소갈문」을 시작하고 있다.

수양명大腸은 진액을 주관하는 곳으로 所生病으로 열이 생기면 즉 눈이 노래지고 입이 마르게 되니 진액이 부족해진 것이다.⁴⁶⁾

족양명위는 혈을 주관하는 즉 소생병으로 열이 생기면 즉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배가 잘 고프게 되니 혈중에 숨어있는 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혈이 부족해진 것이다.⁴⁷⁾

이어서 소갈의 치법은 주단계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폐를 기르고 화를 내려서 혈을 생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상중하를 나눠서 치료한다.⁴⁸⁾

삼소는 주로 혈허하여 진액이 생기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四物湯을 위주로 치료한다. 상소에는 人參, 五味子, 麥門冬, 天花粉, 牛乳汁, 生地黃汁, 生藕汁를 가하고, 중소에는 知母, 石膏, 寒水石, 滑石를 가하며, 하소에는 黃栢, 知母, 熟地黃, 五味子를 가하여 치료한다.⁴⁹⁾

이는 『의방유취』에서 『동의보감』으로 넘어가면서 소갈의 치료의 중심이론도 화열론에서 진액·혈부족론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화열론은 화열로 인하여 진액이 마르게 되어 갈증을 일으킨다고 설명하여, 소갈에서 갈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의론이다. 때문에 앞서 기술한대로 각종 갈증을 소갈문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고, 이는 소갈병의 의미와 범주가 「동의보감」보다 매우 넓었다는 것을 뜻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인체의 진액과 혈이 부족해진 단계가 되어야만 소갈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으로, 소갈의 의미와 범주에서 단순한 갈증은 제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45) 二陽結謂之消. … 註曰 … 結者津液不足, 結而不潤, 皆燥熱爲病也.

46) 手陽明大腸, 主津液, 所生病熱, 則目黃口乾, 是津液不足也.

47) 足陽明胃, 主血, 所生病熱, 則消穀善飢, 血中伏火, 是血不足也.

48) 養肺降火生血爲主, 分上中下治之.

49) 三消多屬血虛不生津液, 宜以四物湯爲主治. 上消, 加 人參, 五味子, 麥門冬, 天花粉, 煎入牛乳汁, 生地黃汁, 生藕汁, 酒客生葛根汁, 調服. 中消, 加 知母, 石膏, 寒水石, 滑石. 下消, 加 黃栢, 知母, 熟地黃, 五味子.

의보감』에서 각종 갈증은 火, 暑, 寒, 虛勞, 婦人 등에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소갈문에서는 제외하였다.

2) 八味元의 처방과 응용

『동의보감소갈』에는 허숙미 『보제본사방』의 설을 따라 ‘消渴由坎火衰少’⁵⁰⁾이라는 조문이 나온다.

폐는 오장의 뚜껑이 된다. 만약 아래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훈증해주면 폐는 윤기있게 되지만, 아래 쪽이 차지면 양기가 올라갈 수 없으므로 폐가 건조해지면서 끓게 된다. 주역에 ‘乾上坤下는 否卦’가 된다고 하였으니, 양기는 음기가 없으면 내려가지 못하고, 음기는 양기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게 되므로 막히게 되는 것이다. … 음식물이 화력을 얻으면 쉽게 소화된다. 또한 마르게 되어 소갈병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마땅히 八味腎氣丸(八味元 加 五味子)⁵²⁾을 쓴다.⁵³⁾

허숙미의 『보제본사방』에는 상기문장의 처방을 八味腎氣圓이라 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熟地黄 半斤
 山茱萸 五兩
 山藥, 澤瀉 四兩
 茯苓, 牡丹皮, 附子, 桂心 各三兩

『동의보감』에서 팔미원은 腎門에 나오며 처방은 아래와 같다.

熟地黄 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牡丹皮, 白茯苓, 澤瀉 各三兩
 肉桂, 附子炮 各一兩

위 내용에서 보듯이 『동의보감』은 附子를 분명히 쓸 것을 논하고 있다.

『의방유취』에서는 화열론을 중심이론으로 채택하면서 부자를 빼고 쓰는 팔미원을 주로 기술하고 있으면서 부자가 포함된 팔미원은 단지 처방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반면, 『동의보감』은 하간의 화열론과 단계의 자음론을 뛰어 넘어 ‘消渴由坎火衰少論’을 주장하여 꼭

50) 消渴由坎火衰少.

51) 金南一,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韓國醫史學會誌 vol.12, No.2, 1999.

52) (卽八味元加五味子也) 이 문장은 『동의보감』에서 주석처리되어 첨가되었다.

53) 肺爲五藏華蓋. 若下有煖氣蒸, 則肺潤, 若下冷極, 則陽不能升, 故肺乾而湯. 易, 乾上坤下, 其卦爲否. 陽無陰不降, 陰無陽不升, 故成否也. 譬如釜中有水, 以火煖之, 又以板覆, 則煖氣上騰, 故板能潤. 若無火力, 則水氣不能上升, 此板終不得潤. 火力者, 腰腎強盛, 常須煖補腎氣. 飲食得火力, 則潤上而易消, 亦免乾渴之患, 宜服八味腎氣丸. (卽八味元加五味子也)

필요한 때에는 다시금 부자가 포함된 팔미원을 쓰도록 하였다. 특히 허숙미의 의론과 처방, 그리고 하간과 단계의 의론과 처방이 이미 『의방유취』 시기에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동의보감』에서 소갈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上·中·下 三消의 분류

『의방유취』의 소갈, 소중, 소신의 삼소론은 인용제서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와 뜻으로 사용하였으며, 서로 중첩되어 혼동되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표2 참조)

「동의보감」은 ‘消渴形證’과 ‘消渴有三’ 조문을 통해 『의방유취』의 여러 가지 삼소론 가운데 『간이방』에서 채택된 상중하의 삼소론만을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 이전 시기에 사용하던 용어인 소달, 폐소와 격소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소달은 중소⁵⁴⁾, 격소는 상소⁵⁵⁾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폐소는 불치증⁵⁶⁾이라고 정리하였다.

상소는 혀바닥이 붉게 갈라지고 크게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는 것이다.⁵⁷⁾

중소는 밥을 많이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며 자한하고 대변이 딱딱하며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다.⁵⁸⁾

하소는 번조를 느끼면서 물을 마시고, 콧바퀴가 타고 건조해지며 소변에 기름이 낀듯하다. 허벅지와 무릎이 가늘고 마르게 된 것이다.⁵⁹⁾

이와 아울러 삼소론의 처방도 분명히 재정리하였다. 혈부족을 치료하기 위해 사물탕의 상중하 삼소에 따른 가감법을 소개하였고, 보다 상세한 응용을 위해 상소 8개⁶⁰⁾, 중소 8개⁶¹⁾, 하소 6개⁶²⁾의 처방을 기록하였다.

* 四物湯 가미법

54) 癯成爲消中. … 凡消癯, 肥貴人則膏粱之疾也. … 中消者, 善食而瘦, 自汗, 大便硬, 小便數, 所謂癯, 成爲消中者是也.

55) 上消者, 肺也. 又謂之膈消.

56) 肺消者, 飲一溲二, 死, 不治.

57) 上消者, 舌上赤裂, 大渴引飲.

58) 中消者, 善食而瘦, 自汗, 大便硬, 小便數.

59) 下消者, 煩燥引飲, 耳輪焦乾, 小便如膏, 腿膝枯細.

60) 白虎加人參湯(人參白虎湯), 加味錢氏白朮散, 麥門冬飲子, 降心湯, 人參石膏湯, 清心蓮子飲, 和血益氣湯, 生津養血湯, 黃芩湯.

61) 調胃承氣湯, 加減三黃丸, 蘭香飲子, 生津甘露湯, 順氣散, 人參散, 黃連豬肚丸, 藕汁膏.

62) 六味地黃丸, 人參茯苓散, 加減八味元, 加減腎氣丸, 補腎地黃元, 鹿茸丸.

上消 : 人參, 五味子, 麥門冬, 天花粉, 牛乳汁, 生地黃汁, 生藕汁

中消 : 知母, 石膏, 寒水石, 滑石

下消 : 黃柏, 知母, 熟地黃, 五味子

이를 통해 『의방유취』의 인용제서에서 혼재되어 있던 삼소의 구별과 의미를 『동의보감』에서는 상중하의 삼소로 명확히 하였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분명히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러나 삼소론으로 구분짓기 어려운 19개의 처방⁶³⁾을 ‘소갈통치약’ 조문에 다시 한번 제시하여 빠짐이 없도록 하는 배려를 하였다.

4) 소갈병의 범주

『동의보감·소갈』은 消渴之源, 消渴形證, 脉法, 消渴有三까지는 진액 및 혈부족론을 바탕으로 한 상중하 삼소론으로 소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食飮證, 消渴小便恬, 消渴由坎火衰少, 消渴與脚氣相反, 消渴通治藥에서는 앞서 소갈에 대해 설명한 것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여 소갈병의 의미와 처방을 좀더 명확히 기술하였으며, 이어서 酒渴⁶⁴⁾, 蟲渴⁶⁵⁾, 強中證⁶⁶⁾ 등 독특한 원인에 의한 발생한 소갈병을 설명하였다. 消渴傳變證, 消渴須預防癰疽, 不治證, 禁忌法은 단순히 소갈병을 분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소갈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의방유취』에서는 소갈, 소중, 소신의 삼소로 인한 갈증 외에 화, 서, 한, 식, 허로, 산욕 등으로 인한 각종 갈증까지를 소갈병의 범주로 보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상중하의 삼소로 인한 갈증만을 소갈병으로 보고 이것 외의 제반 갈증은 화, 서, 한, 식, 허로, 산욕 등의 각각의 조문에서 다루고 있다. 또 『의방유취』에서는 화열론을 중시하고 있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진액 및 혈부족론을 중요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화열론은 화열로 인하여 인체의 진액이 부족해져서 渴症을 느낀다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했으나 화, 서, 한, 식, 허로, 산욕 등으로 인한 갈증과 소갈병으로 인한 갈증을 감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액 및 혈부족론은 기타 잡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갈증을 제외시킨 『동의보감』의 消渴病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화열에 의한 일시적인 진액부족의 단계는 단순한 갈증이며, 화열이 발생된 각각의 질병 범주에서 치료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체의 진액과 혈부족이 진행되어 상중하 삼소 및 전변증, 불치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갖는 갈증만을 소

63) 滋飲養榮湯, 活血潤燥生津飲, 桑白皮湯, 梅花湯, 大黃甘草飲子, 清神補氣湯, 黃芪湯, 天花散, 黃連地黃湯, 生地黃飲子, 門冬飲子, 玉泉散, 玄菟丹, 三消丸, 玉泉丸, 五汁玉泉丸, 生地黃膏, 荔枝膏, 衛生天化元

64) 治嗜酒積熱, 津液枯燥, 煩渴引飲, 專嗜冷物.

65) 虫在藏府, 耗其津液而成消渴.

66) 多因耽嗜色慾, 或服丹石, 眞氣旣脫, 熱邪獨盛, 飲食如湯消雪, 肌膚日削, 小便如膏油, 陽強與盛, 不交精泄. 三消之中, 最爲難治.

갈병이라고 보고 진액과 혈을 보충하는 처방들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동의보감』에서는 消渴傳變證, 消渴須預防癰疽, 不治證, 禁忌法의 네가지 조문을 더 두고 있다. 이것은 진액과 혈이 부족하여 발생한 소갈이 상증하로 구별된다는 것 외에도 병이 오래되면 癰疽, 水病, 雙目失明⁶⁷⁾, 中滿, 鼓脹⁶⁸⁾ 등으로 변해가고 심한 경우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소갈병이 당뇨병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방유취』에서는 소갈의 작은 주장이었던 것이 독립된 조문을 통해 심화되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방유취』에서 『동의보감』으로 건너오면서 소갈의 주요 이론과 삼소의 분류법, 치료법, 전변과정이 좀더 명확히 기술되었다. 또 제반 갈증을 모두 소갈에 포함시킨 『의방유취』와 달리 『동의보감』에서는 진액과 혈이 고갈되어 나타나는 갈증만을 소갈의 범위에 두고 있다.

III. 結 論

한의학의 소갈병에 대한 연구는 당뇨병자의 증가와 함께 다각도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한의학의 내부 논리에 따른 소갈병의 범주와 치료 이론 및 처방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상태이다.

본자는 한국의학사에서 소갈병을 어떻게 인식해왔고, 어떠한 논리에 의해 치료에 임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첫 단계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전기와 중기 각각의 대표의서인 『의방유취』와 『동의보감』의 소갈문을 비교·검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의방유취』에서 『동의보감』으로 넘어가면서 소갈병에 대한 범주와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그로 인한 중심 이론과 처방, 치료법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방유취·소갈문』에서는 화열론을 중심으로 채택하였고, 소갈, 소중, 소신의 삼소로 소갈을 분류하였으며, 이 외에도 화, 서, 한, 식, 허로, 산욕 등으로 인한 각종 갈증을 소갈병의 범주로 간주하였다. 『동의보감·소갈』에서는 진액 및 혈부족론을 중심이론으로 채택하였고, 상증하의 삼소로 소갈을 분류하였으며, 이것 외의 화, 서, 한, 식, 허로, 산욕 등으로 인한 갈증은 각각의 조문에서 다루었고 소갈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동의보감·소갈』에서는 화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갈증을 소갈로 보던 『의방유취』의 관점을 넘어 일시적인 진액손상의 단계가 아닌, 인체의 진액과 혈이 부족해진 단계에 이르른 갈증의 상태를 소갈병으로 인식하였다. 이 단계의 갈증은 상증하 삼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소에서 중소로, 중소에서 하소로 병이 깊어진다고 서술하였다. 이어서 『

67) 消渴, 久病變成, 發癰疽, 或成水病, 或雙目失明.

68) 能食者, 必發腦疽背癰, 不能食者, 必傳中滿鼓脹.

의방유취』에서는 산재되어 다루어진 전변증과 불치증을 상세히 설명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병정의 변화를 분명히 기술하였다.

셋째, 『의방유취·소갈문』에서는 화열론을 중심이론으로 채택하여 팔미에서 부자의 용법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동의보감·소갈』에서는 '진액 및 혈부족'론과 '소갈유감화쇠소'론을 채택하여 꼭 필요한 때에는 부자를 쓸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의방유취』에는 전대의 모든 의학이론과 논술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술하면서도 중심이론에 따른 편집의도를 가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동의보감』은 『의방유취』에 흠어져있는 여러 의론과 처방들을 많은 논쟁과 임상경험을 통해 소갈병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의학 전반에 걸쳐 모든 질병의 치료에 있어 지속적인 토론과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일례로 삼을 수 있다. 향후 조선의 여타 의서들에서 소갈병의 치료에 어떤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면 현대인들의 소갈병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인 고찰과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姜錫峯 외 3인, 消渴의 傳變症과 糖尿病의 慢性合併症에 대한 比較考察, 제2회 동의·경산 한의학학술대회 자료집
- 강연석·안상우, 『鄕藥集成方』 중 「傷寒門」의 본초분석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鄕藥醫學,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2(통권9호), 2002
- 강연석·안상우, 『鄕藥集成方』 중 「鄕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통권8호), 2002
- 강연석·안상우, 『鄕藥集成方』 「咳嗽門」에 나타난 朝鮮前期 鄕藥醫學의 특징, 韓國醫史學會誌 16/1, 2003
- 고경덕 외 3인, 消渴傳變證에 관한 考察 - 중풍 病理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大韓韓方內科學會誌, 第18卷 第2號, 1997
- 金南一,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韓國醫史學會誌 vol.12, No.2, 1999.
- 김남일·신동원·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서울, 1999
- 金英禧 외 1인, 消渴의 病因病機와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한의학논문집 제4권 제1호, 1995.
- 김대형, {의방유취}에 인용된 {오장육부도}의 저자와 편제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9/2(통권11호), 2003
- 柳明淑, 『東醫寶鑑』에 나타난 錢乙의 五臟辨證 研究, 경희대학교, 2005.
- 朴憲在, 消渴(糖尿病)의 概念과 그 治療에 關한 管見
- 白政翰 외 2인, 消渴의 原因과 分類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西醫學 제20권 제3호(통권 제64호), 1995.
-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안상우, 『醫方類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영향, 전국한의학학술대회자료집, 2000.
- 楊海燕, 消渴病(糖尿病)證治의 中醫文獻研究, 山東中醫藥大學, 2001
- 오준호, 동의보감 침구편의 의학적 고찰, 한국사학회지 17권 1호 2호, 2004
- 이상원·김남일, 『東醫寶鑑』의 傷寒에 대한 認識 - 六經形證用藥을 中心으로 -, 국제동아시아전통의학사학술대회자료집, 2003
- 張仁圭, 消渴에 對한 文獻的 研究, 東西醫學會誌 第10卷 第1號, 1985.
- 張仁圭, 消渴에 應用되는 腎氣丸에 關한 文獻的 研究, 東西醫學 第10卷 第4號, 1985
- 張泰洙 외 2인, 症狀을 中心으로 본 消渴과 糖尿病의 關係, 韓方內科學會誌 3월호 2권 1호, 1985.
- 鄭珉雅, 許浚의 『診解胎產集要』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 2003.
- 崔鍾百 외 1인, 消渴의 原因에 對한 文獻的 考察, 東西醫學 第20권 第2호(통권 제63호), 1995.
- 최환수 외1인, 『의방류취』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3권 제1호, 1997.
- 黃鎬觀, 『東醫寶鑑』에 나타난 食餌療法の 考察(I) - 消渴(糖尿病), 師大論文集 第7輯, 1981.
- 盧重禮 외, 醫方類聚, 여강출판사, 1991
- 북한 의학과학원 동의학연구소 역, 김례몽 등, 醫方類聚, 여강출판사, 1991
- 許浚, (原本)東醫寶鑑, 남산당, 2001
- 楊思澍외 2인, 中醫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 安世永 譯, 東醫臨床內科學, 法人文化社, 1999
- 許叔微, 證類普濟本事方, 中國醫學大系, [臺北]: 商務印書館, 1990
-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 www.kiom.re.kr)